땅을 맹공격하는 두 증인

(계11:1~13)

1.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4.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5.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땅을 맹공격하는 두 증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11장 말씀의 위치가,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고 재앙이 임한 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까지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계시의 내용을 써가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오늘의 아침 번제 시간에 불가능하고, 그렇게 모든 단어와 표현들의 의미를 솔직히 다 찾아낼 수도 없어요, 제 능력의 한계죠.
오늘도 어려운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분명하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고 있는 어느 문단을 대할 때에는, 그 문단의 주된 주제는 확실히 붙잡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그 핵심 되는 단어가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실마리를 찾아서 오늘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증인은 무엇인가를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옮기는 자들이 증인 아닙니까?
이 두 증인이 증거를 하면서 뭘 하나 살펴봤더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 되는 부분만 꼬집어서 보면, 우리가 읽은 6절 하반절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라고 나옵니다.
‘땅을 친다.’
이것은 억울해서 땅을 친다는 것이 아니고 땅을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땅에 흠집을 내고, 땅을 상하게 하고, 땅을 친다는 것이에요.
앞에 보면 “여러 날 동안 비가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라고 나오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든지 물이 피로 변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이 다 땅에 상처를 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땅을 친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10절을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라고 나옵니다.
결국, 두 선지자가 죽는 모양인데 사람들이 왜 두 선지자의 죽음을 기뻐하느냐?
땅을 치고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는데, 이게 두 증인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 하면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치고 땅을 맹공격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땅에서 산다는 것은 땅에 근거를 두고 산다는 이야기고, 땅에서 기쁨과 평강과 성취를 얻으려고 사는 자들입니다. 기쁨과 평강과 성취의 근거가 되어주는 곳이 땅인데, 그 땅을 치니까 이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근거를 자꾸 해치려고 하니까.

결국 이들이 죽어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보면, 7절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죽은 자들이 11~13절 부분에서는, “다시 살아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원수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는 상황에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서 칠천 명이 죽고 남은 자들은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나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논리적으로 의미를 연결하는 일이 머리가 깨지겠어요. 빠개진다니까요.(하하하)
아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대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몇 번에 걸쳐서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부활은 순교자들의 부활이 있고, 순교하지 않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중요한 해석의 한 경향을 띄고 있는 그룹이 있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부활도 여러 번 일어나요.

자, 이제 우리 나름대로 내용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부터 출발해 보자고요.
땅을 맹공격하는 두 증인이, 이렇게 땅을 공격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본 것과 들은 것에 준해서 볼 때, 이 땅은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뭘 보고 뭘 들었을까요?
그게 바로 앞의 10장에 나온 겁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내려왔어요.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처럼 빛납니다. 그리고 발을 불기둥 같은데 땅에 내려와서 한 발로는 바다를, 한 발로는 땅을 딛고 섰습니다. 이 세상에 내려온 거죠. 그리고 펼쳐져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온 천사가 사자 같은 소리를 내자 하늘에서 일곱 천둥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게 뭘 말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시간 공간 속에서 머무는 동안 세세토록 계시고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땅을 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10장에 보면 3번이나 강조를 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집중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시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시간 바깥에 있어서 시간을 타지 않고, 세월을 타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과는 다른 차원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지금 현재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땅에 사는 동안에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들은 사람들의 증거가 이제 예언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 같이 빛나는 하나님, 보석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는 너무 좋아서 펄펄 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1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라고 나옵니다.
중동 땅에서의 갈대는 우리나라 연못에서 사는 갈대와는 달라서 2~3m까지 큽니다. 나무 몽둥이 같죠. 그런 갈대를 꺾어 말려서 측량하는 자로 씁니다.
요한에게 그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증인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함을 통해서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일까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깡그리 없어져버립니다. 그 성전이 있을 당시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에 어떤 광경이 이루어졌느냐?
가장 가운데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둔 지성소가 있지요. 성소를 반으로 갈라서 더 안쪽은 지성소였고 그 바깥쪽은 성소였는데, 그 성소 앞쪽으로 마당에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번제단 바깥 방향으로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를 다 합쳐서 성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이방인의 뜰까지 다 합쳐서 말하는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오스’가 성소를 말합니다. 성전의 맨 안쪽에 있는 성소. 그러니까 성소와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스라엘의 뜰과 여자의 뜰까지를 합쳐서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데, 원래 히에론 성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곳은 측량하지 말라는 겁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영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마치 미국이 핵우산이라고 해서 어디까지를 핵으로 보호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관심의 영역을 표현하는 것인데, 바로 이 성소와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까지가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 경배하는 자들이 증인이 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날마다 두 마리의 양으로 제사를 드리

되,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 회막 문에서 내가 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날 것이고, 거기서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10장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되는 천사 즉,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일곱 천둥소리를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습을 보고 듣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셔져 있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모셔져 있는 지성소가 있는 성소와 그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십자가가 번제단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말씀의 총화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인데, 그 십자가를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뭐에 대해서 죽을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 땅에 대해서 죽을 때,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이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 하면, 땅에 근거를 두고 평강의 삶을 구축하려 하고, 땅에 근거를 두고 기쁨의 삶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땅을 치기 시작합니다.
'땅에 근거를 두고 기쁨을 얻는 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시간 바깥에서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데, 진짜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업인데, 왜 땅에서 기업을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꾸 땅을 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성전 바깥마당의 이방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분명히 성전 바깥마당의 이방인의 뜰도 히에론이라는 성전 안에 들어있던 자리에요.
이게 바로 교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은 성소와 제단에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경배한다는 것은 입을 맞추면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입을 맞추면서 경배한다는 것은,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현재형 동사의 분사인데,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보면서 주님께 입을 맞추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있고.
바깥에는 교인들이지만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 입을 맞추면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방인인데 이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흔두 달이라는 이야기는 숫자적으로 삼년 반 아닙니까?
이 기간 동안에 짓밟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마흔두 달이라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주전 168년 6월에 헬라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합니다. 돼지피를 성전 제단에 들이면서 유대의 모든 종교적인 전통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마카비가 헬라 왕을 무찌르고 성전을 회복하는데 이게 바로 하누카(Hanukka)라는 봉헌절이고 수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헬라 왕에 의해서 모독을 당한 기간이 삼년 반입니다. 이것이 마흔두 달이고, 천이백육십일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에게 끊임없이 입을 맞춤으로 경배함으로써 땅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있고, 반면에 예수님께 끊임없이 입맞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거룩한 성전을 욕보이듯이 그렇게 욕보이면서 교회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더럽히는 동안 한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증인된 교회가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 땅에 마음 붙이지 말라. 이 땅은 우리 삶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땅에서 기쁨을 캐내려고 하지 말라. 기쁨은 이 땅에 없다. 이 땅에서 평강을 이루려하지 말라. 이 땅에서 성취해서 성공하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땅에서 이루려고 했던 꿈과 비전을 운운하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땅을 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에 듣기 싫으니까 막으려 하고 틀렸다고 하고 잘못됐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십자가, 십자가복음의 설교를 하는 것을 보고, ‘구원 받지 못했다. 구원 받았다면 십자가 자리를 떠나야지 언제까지 십자가에 머물고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봤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땅에 안착해서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뭔가 좀 세우고 싶으니까, 십자가를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이 소리를 잠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진하는 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의 근원과 평강의 근원과 성취의 내용이 다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마음을 두지마라. 땅에서 예배당을 짓는다는 것을 목표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땅에서 교인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듣기 싫고 꼴 보기 싫어도 이들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땅을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지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표현해요.
두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세상을 밝히니까 두 촛대라고 한 것이지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성소와 제단에서 경배하는 교회, 십자가의 주님을 끊임없이 입 맞추면서 하나님을 보는 교회, 그 교회가 증인으로써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든지, 엘리야가 삼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늘을 막았다든지, 이런 권능들을 행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참된 증인으로써 살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볼 때에 이런 식으로 땅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삼년 반 동안 비를 못 오게 했다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피가 됐다는 것은 모세의 삶을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의 삶이 어땠습니까? 혼자였어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혼자 싸웁니다.
모세가 애굽 왕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 아무도 모세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땅에 마음을 붙이고 있고, 하늘에 진짜 좋은 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이게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진짜 재앙으로 땅을 칩니다. 땅 위에서 잘 살아 보겠다고 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에게,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에 마음을 붙였다가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뭡니까?
근거가 되는 땅 자체를 아예 무효화시켜 버리고, 무의미화 시켜버리고, 그 땅에 마음을 붙이

고 있는 한 망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게 땅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땅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재앙이 없죠.
땅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니 나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해? 나의 존재를 사람들의 마음에서 말살시키려고 해?'라고 하니까 재앙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땅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증인에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이 전쟁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은 증언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증언을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기 할 만큼 다 했어요. 땅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바보라도 다 알아 들을 만큼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치는 겁니다.
여기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전쟁을 해서 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증언 활동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무저갱의 짐승이 올라와서 이겼다는 것, 무저갱이 뭐죠?
앞에서 "거룩한 성"이라고 했어요. 거룩함의 반대가 무저갱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좋으심이 높이, 높이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없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반면에 무저갱은 밑바닥으로 끝이 없는 거예요.
무저갱의 짐승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바닥으로 끝이 없는 곳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데, 무저갱의 끝도 없는 이 어둠 속으로 마음을 두라고 하면 아무도 안 둘 테니까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공중에 있는 마음으로 하여금 이 땅을 향하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높이, 높이 아무리 올라가도 그 좋으심이 끝도 없는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려고, 반대로 공중에 있는 마음으로 하여금 아래를 보게 하기 위해서 땅에 좋은 것이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저갱의 짐승과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땅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공중에 있는 마음으로 하여금 아래를 보게 하는데 실제로는 무저갱에 끌어들이려고 땅을 미끼로 삼는 겁니다.
이 땅을 미끼로 삼는 자들이 승리했다는 이야기는, 온 교회가 완전히 땅에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의 관심에 풍당 빠져버리고 사로잡혀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밑에 나오는 "성"이라는 것은 위의 거룩한 성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예루살렘 성 밖의 영역을 또 하나의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과 성취하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애굽이고.
자, 이렇게 해서 땅을 괴롭게 한 자가 죽자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 말은 이제 일반 사람들과 교인들이 똑같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증인들의 증거를 헛된 소리로 받아들여서 시체처럼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들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13절에 "부활해서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칠천 명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하늘이 깜깜해지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순간 증인됨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의 짐승이 이긴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증인으로서 증거를 했어요.
'왜 땅에다 마음을 두느냐? 시간 바깥의 세상이 지금 우리 위에 있고, 그 위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진짜 좋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요.
'돈이 좀 벌려야 좋고, 이 세상에서 좀 높아지고 승진을 해야 좋지 무슨 소리냐?'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증언이 끝나고 완전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무저갱의 짐승이 세상을 평정해버리

면서, 교회조차도 세상과 똑같아져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관심이 다 빠져있는 그 순간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렸던 것 같은 이 하늘을 보고 있는 증인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들이 증인으로서만 말하던 그 하늘이 직접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교회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증거로만 듣던 하늘이 직접 나타나 역사하는 순간이 될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의 근거라고 여겼던 그 땅이 갈라져버리고, 땅에서 누리고 소유하고 벌었던 것들을 지키던 성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들이 증거 하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십자가사건에서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경우에서도 간수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이것이 두루마리 책을 먹었을 때에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리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말씀을 먹을 때에는 나는 너무 좋은데, 먹은 자에게 생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증거를 해야 돼요. 증거를 하다보면 이런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것이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측량 받는 영역 안에 속한 자들로서 증인이 되어 땅을 치면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 그러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